

#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 연구

정진경\*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변질된 정신 가치의 비판과 문명 |
| II. 자기보존 욕구와 생명의 냄새 | 냄새                     |
|                     | IV. 결론                 |

국문초록

후각적 감각은 한국시사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응하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진단하는 코드가 될 수 있다. 각 감각은 의식화 과정이 유사하지만 인지된 감각이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신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감각적 관점 연구와 후각적 관점 연구는 공통의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후각적 관점으로 해명할 수 있는 측면이 따로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를 신체의 지각 이론과 사회·문화적인 후각 이론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50년대 시에서 후각 이미지는 민족의 생존 위기를 지각하는 ‘피비린내’와 생존본능을 추구하는 ‘배설물 냄새’ 그리고 근원적인 생명성을

\* 부경대학교 강사

갈망하는 ‘흙 냄새’와 같은 자기보존 욕구의 냄새로 나타난다. 이러한 후각적 의식은 과거를 지향하거나 경험적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후각적 감각이 뇌의 원초적인 부위와 상호소통을 하여서 감수성과 무의식의 영역을 더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른 감각과는 달리 생물학적 존재성의 영역을 더 잘 표출한다. 50년대 민족의 존재성이 생물학적 세대성을 염려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후각적 감각으로 의식화한 것이다.

둘째, 50년대 시에서 후각 이미지는 당대 현실로 인한 실존적 불안이나 문화주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배 연기’나 ‘서구 냄새’와 같은 문명적 냄새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불안을 관념적 세계로 도피하여 해결하려고 하거나 타 문화의 냄새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양상을 통해서 표출된다. 이것은 현 실존성에 대한 강한 부정이며 문화적 주체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시인들의 도덕적 의식의 발로이다. 50년대 민족의 실존적 상태와 정신적 가치를 표상하는 문화주체성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후각적 감각으로 의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후각적 감각은 생물·사회학적 실존성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신체적, 정신적, 역사적 사실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50년대 시에서 어떤 정치성이나 계급, 투쟁적 차원의 특징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당대 사회가 저항할 의지를 갖지 못할 만큼 생물·사회학적 존재성을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들은 전후 현실을 사는 민족의 존재론적 문제와 실존성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가치를 감각적으로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1950년대, 후각 이미지, 후각적 감각, 냄새, 감각적 시 연구

## I. 서론

인간이 지닌 감각은 생명 활동의 기본 바탕이 되는 동시에 사회화되어 존재의 구성에 기여한다.<sup>1)</sup> 후각적 감각 또한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고대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등 뿐만 아니라,<sup>2)</sup> 현상학자들도 언급하고 있다.<sup>3)</sup> 후각적 감각의 의식 관련성은 19세기 신경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몬티플리크는 코의 안쪽에 있는 야콥슨 기관이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야콥슨 기관에 인지된 냄새는 뇌와 상호작용을 하여 감정이나 느낌, 욕구와 같은 부분들과 관련되기도 하지만<sup>4)</sup> 의식 속에 내재된 기억이나 무의식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성이나 학습된 의식의 영역으로 나아가 여러 사회화에 관여할 뿐 아니라<sup>5)</sup> 문화적인 상징체계 등의 정신적 가치로 형성<sup>6)</sup>되어 그 영향력을 가진다.

이런 후각 이론들은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후각적 관점에서 연구

1)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56쪽.

2)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 궁리출판, 2010, 38-47쪽 참조.

3)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316쪽 참조.

감각을 의식의 매개체로 보는 후설의 이론은 메를로 폰티에 와서는 감각 그 자체가 의식의 주체가 된다는 논리로 발전된다. 그런데 이들 이론에서 ‘감각’은 각 감각으로 세분화되어 언급되기보다는 시각 중심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들 학자가 말하는 논의의 초점이 신체와 정신의 상호관련성 문제라는 점에서 보면, 감각의 의식화 작용은 오감 작용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해석된다.

4) 라이얼 왓슨, 이한기 역, 『코』, 정신세계사, 2002, 23쪽, 26쪽.

5) 후각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켄 월버나 루돌프 슈타이너, 이·푸 투안 등도 인간의 후각적 경험과 기억이 대뇌를 통해 학습되고 사회화된다고 주장한다. 학습화된 냄새는 곧 사회화된 냄새인데, 후각이 그 사회가 원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후각의 도덕적 기능을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경, 「193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4쪽.

6) 알베르트 스스만, 서영숙 역,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 2007, 112-131쪽 참조.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콘스탄스 클라센이나 라이얼 왓슨, 피트 브론, 다이낸 앤커먼 등의 사회·문화 학자들이 냄새의 의미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sup>7)</sup>의 현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후각적 감각이 의식화에 관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이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후각 이데올로기와 상징들은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식화된 사회·문화적인 가치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후각적 감각은 한국시사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응하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진단하는 코드가 될 수 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닌 직관과 유사한 의식화 과정<sup>8)</sup>을 갖고 있는 후각적 감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후각적 감각이 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사에서 후각적 관점의 연구는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 한국시사는 1920년대 상징주의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부터 후각을 간과했다.<sup>9)</sup> 그나마 후

7) 콘스탄스 클라센 외, 김진옥 옮김,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10쪽.

8) 시의 직관과 후각적 작용 원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판단, 추리 등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1974, 1424쪽)이다. 생명의 내부를 분석하는 직관은 자기의식적이라는 점에서 자연과 정신, 자연과 문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신체의 습성(습관) 개념 때문인데, 신체의 습성화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문화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매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7, 169쪽, 170쪽) 그리고 시의 출발점은 어떤 면에서 시인의 직관에서 비롯된다. 시인의 직관은 사유판단 없이 순간적으로 지각되는 현실의 반응이자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이다. 시적 의식이란 결국 직관의 구체적인 의식화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직관은 냄새의 자극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수동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후각의 의식화와 유사하다. 후각은 시각과는 달리 사유되지 않고 본능적으로 지각되는 의식이다. 냄새의 본능적 지각이 그것을 감지하는 야콥슨 기관과 대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의식화되고, 사회 이데올로기나 문화적인 상징체계로 전환된다. 후각은 생존감각을 지각하는 본능에서부터 현실뿐 아니라 원형의식으로부터 의식화된다. 정진경, 앞의 논문, 5-6쪽 참조.

9) 후각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난 상징주의 문학의 모태이다. 상징주의 시에서

각이 조금 거론된 것이 1990년대이다. 하지만 이때의 후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해와 문명비판<sup>10)</sup>의 차원에서 대두된 생태 담론<sup>11)</sup>의 일환이다. 최근, 우리시사에서 몸 담론이 성행하면서 신체와 정신의 상호관련성<sup>12)</sup>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 이미지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시사에서 후각 이미지 연구는 단 2편<sup>13)</sup>으로, 현재까지도 주변부 문학 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소래섭과 정진경의 후각적 관점 시 연구는 후각적 감각의 가능

---

냄새의 무형성은 정서의 무형성이라는 문학적 메타포로 대체된다. 시인들은 냄새를 정서적 이미지로 변화시켰으며, 냄새의 환기성을 원초적인 존재성을 의식화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에게 냄새는 시적 미학으로 삼는 수단인 동시에 정치적 주장의 한 양상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콘스탄스 클라센, 『향을 따라서-중세에서 현대까지』,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119-120쪽 참조.)

우리 근대 자유시의 전개에도 실상 ‘후각’의 감각적 개입이 작용했다. 그것이 낭만주의적 경향의 시나 작품에서 후각 이미지가 상당히 검출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지만 감각은 곧 음악성이라는 인식은 1930년대 김기림의 모더니즘이 소개되면서, 감각은 곧 회화적 이미지즘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후 한국시사에서 감각은 현대적 기법이라는 논리의 고착 속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930년대 시각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반대 개념, 근대성, 이성 등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이후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를 연구하는 논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정진경, 앞의 논문, 11쪽.

10) 김성규,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부정정신」,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송영상,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죽음의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1) 김행숙, 「최승호 시의 생태학」, 『우리어문연구』제25권, 우리어문화회, 2005.

12) 전미정 「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서정주, 오장환, 송옥, 전봉건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기택, 「한국 현대시의 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임지연, 「1950-60년대 현대시의 신체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3) 소래섭, 「1920-30년대 문학에 나타난 후각의 의미」, 『사회와 역사』제81집, 한국사회사학회, 2009.

정진경, 앞의 논문.

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소래섭은 20~30년대 문학을 후각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냄새를 시인의 내면이나 사회·문화적 현상을 대변하는 표지로 보고 있다. 소래섭의 논문은 최초의 본격적인 후각적 관점 연구라는 점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각적 관점 연구가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해석에만 치중해 있어 감각적 본질로서의 후각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감각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그 의미가 사회·문화적으로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감각의 의식화 과정과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상징체계를 두루 살펴보아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후각 연구의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가 정진경의 논문이다. 정진경의 논문은 30년대 시의 전반을 다루면서 후각적 감각이 다른 감각들과 다른 정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현실 대응력이나 미학적 가치가 다르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의 논문은 그동안 후각적 감각이 가졌던 기존의 인식을 재평가하는 등 후각적 관점 연구의 가치를 입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한국시사에서 지속적으로 50년대 시를 비롯한 여러 시대의 시를 후각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50년대 시에 나타나는 후각 이미지<sup>14)</sup>를 후각적 관

14)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50년대 발표된 시와 시집으로 한다. 그리고 이후에 발간된 시집이라도 50년대에 발표된 시들은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50년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연구가 사회·문화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의 선정은 시로 형상화되어 있는 후각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그 비중에 따라 선정하였다. 또한 후각 이미지 범주는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뿐만 아니라 후각적 특질을 가진 대상들도 포함한다. 시의 이미지는 신체적 지각이나 기억, 상상 등에 의해 생긴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좁은 의미에서 이미지란 시각적 대상과 장면의 요소만을 가리키지만 한 편의 시나 문학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이미지는 감각이나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내포한다.(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4, 157-173쪽 참조.) 그런 점에서 후각 이미지란 냄새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용어나 후각적 특질을 형용사로 보여주는 대상뿐 아니라, 냄새성을 함축하고 있는 사물도 포함

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신체 현상학 이론들을 의식 논리의 근거로 삼고, 그 토대 위에서 후각의 사회·문화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때문에 50년대 시를 후각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후각적 감각이 가진 정신적 특성을 근거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각적 특징으로 50년대 시를 살펴볼 때 가장 본능적인 사회화의 단계인 자기보존 욕구와 가장 승화된 사회화의 단계인 정신적 가치의 양상이 많이 보인다.

## II. 자기보존 욕구와 생명의 냄새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생존감각과 생명성 갈망의 냄새는 생물학적 존재성이 모두 위협받은 50년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6·25 전쟁은 민족의 생물학적 존재성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전쟁 후에도 지속되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그 존재성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은 시인들로 하여금 차분히 현실을 바라보는 이성적 목소리를 내게 하기보다는 생존의 절박함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직관적 반응에 매달리게 했다.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욕구는 후각적 감각에서 신체의 냄새를 통해 표출하거나, 냄새의 자극을 받은 야콥슨 기관이 뇌와 상호작용하여 무의식이나 경험적 기억을 환기하는<sup>15)</sup> 방식으로 표출된다. 주로 유전자적인 냄새를 통해서 표출되는 자기보존 욕구는

---

한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꽃 향기가 난다.’는 말은 후각적 특질을 보여주는 ‘향기’라는 말 때문에 후각 이미지가 된다. 그러나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고 했을 때, 아카시아꽃은 후각적 특질을 보여주는 형용사가 없더라도 냄새성을 담지하고 있다. 냄새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 후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15) 콘스탄스 클라센·데이비드 하위즈·앤소니 시노트, 『냄새의 세계』,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155쪽.

후각적 차원에서 가장 본능적인 사회학적 행동이다. 냄새를 통해서 사회적 존재성을 표출하는 양상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자아나 정체성을 대변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정체성을 대변하는 후각적 지각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나아갈수록 본능에서 멀어지는데,<sup>16)</sup>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신체의 냄새로 표지(標識)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있는 냄새나 후각적 환경 등에 의해서 표상된다.<sup>17)</sup> 그것은 이들의 냄새가 동종 간의 정서와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로 작용하여 구성원 간의 연대를 형성하거나,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의 위기를 지각하는 생존 감각은 “저차원의 무의식적 본능이라도 항상 타자나 세계로 향해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내지 ‘상호주관적’ 성격을 지닌다.”<sup>18)</sup> 이런 ‘상호주관성’으로 인해 한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 의식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메를로 폰티는 감각이 재구성해낸 의식 그 자체를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매체’로 보기도 한다.<sup>19)</sup>

이런 후각적 기능들은 시에서 생물학적 존재성의 위기를 지각하는 냄새와 근원적인 생명성을 갈망하는 냄새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 1. 생물학적 존재 위기와 피비린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는 시에서 주로 존재의 죽음이나 위기를 인식하는 냄새로 나타난다. 이런 냄새들은 유전적인 요소를 통해 표출된 것인데, 그것이 신체 내에 있는 비린내 나는 ‘피 냄새’이다. 콘스탄티 클라센은 피나 정액, 젖 냄새 등을 비린내를 풍

16) 라이얼 왓슨, 앞의 책, 74쪽 참조.

17) 콘스탄스 클라센·데이비드 하위즈·앤소니 시노트, 앞의 책, 156쪽, 158쪽 참조.

18) 이남인, 「본능적 지향성과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성」, 『현상학과 실천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3, 38-63쪽 참조.

19) 메를로 폰티, 앞의 책, 522쪽

기는 생명력의 특징적인 냄새로 본다.<sup>20)</sup>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풍기는 비린내는 최초의 경험 기억으로 잠재되어 있는 생명성의 표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몸 안에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비린내를 풍긴다는 공통의 특징을 가진다. 비린내는 몸 밖으로 나올 때 생명력 의지를 강하게 부각을 시킨다. 하지만 피비린내는 생명을 키우거나 잉태시키는 짓이나 정액과는 달리 생명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야 발산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시에서도 ‘피비린내’는 주로 부정적인 함의로 지각이 되는데, 아래 시들을 보면 ‘피비린내’가 민족 간에 서로를 살육하는 동족상잔의 현장에서 지각된 것인 걸 알 수 있다.

모진 바람이 분다//그런 바람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체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중략)///벽, 벽……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열미쯤 나르면 아방(我方)의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박봉우, <나비와 鐵條網> 부분 (『전봉건 시전집』, 2008  
<『문학예술』, 1956>)

외로운 목숨들이/검은 그림자를 밟고/피비린내 나는 뒷 거리에/陰謀와 罪惡이 짓어 흐른다

-이설주, <石像의 노래>부분 (『受難의 章』, 1950)

갈라진 강토에선 오늘도 피가 흐른다/할미꽃 보다 더 짙은 피가 흐른다/어느 문서에 있는 죄물 이기에-//이런 청년의 벽력만 없다면/하필 탄환 재며 피 비린내 피울거나/달 속의 계수나무 비치는 우물에선 아내가 물을 짓는/못 잇을 村落을 뒤에 두고/戰場으로 달림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연고로/유식한 사람들 하나같이 전쟁을 미워하는 世代에/누구는 싸움이 좋을건가/꽃같은 청년들을 누구는 싸움터로 보내고 싶을거나

20) 콘스탄스 클라센·데이비드 하위즈·엔소니 시노트, 앞의 책, 139쪽.

-노천명, <祖國은 피를 흘린다> 부분 (『별을 쳐다 보며』, 1953)

위의 시를 보면 시인들은 피폐한 민족적 현실과 그로 인해 죽음에 직면해 있는 우리 민족을 ‘피비린내’로 의식화하고 있다. 생물학적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봉우는 <나비와 鐵條網>에서 ‘피비린내’를 생물학적 존재의 위기를 환기하는 매개체로 사용한다. “피로 적신 날개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한 마리 나비”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민족 간에 반목을 하고 있는, 좀 더 나아가면 민족적 존재와 사회적 현실을 후각적 감각으로 의식화한 상징적 의미로 여겨진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이설주는 <石像의 노래>에서 “피비린내 나는 뒷 거리에”서 흐르는 “陰謀와 罪惡”, 즉 동족상잔을 가져오는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남북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생존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시인의 직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노천명의 시 <祖國은 피를 흘린다>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그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해소하는데 “하필 탄환 재며 피 비린내 피”웠어야 하냐고 반문한다. 이념적 갈등 때문에 우리 “강토에 피가 흐르고” “꽃같은 청춘들을” “싸움터”로 내몰았던 현실을 후각적 감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피비린내’라는 후각적 감각을 통해 동족 간에 금기 되어야 할 전쟁의 참상이나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로 피폐해진 사회적 현실이나 존재의 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피비린내’의 의식화는 후각적 감각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생물학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성의 위기성으로 동시에 표상된다. 일차적으로 신체의 피는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단순히 ‘피비린내’로 지각된다. 하지만 야콥슨 기관은 뇌가 기억하고 있는 피비린내에 대한 기억과 경험 그리고 학습된 의미들을 환기시켜 연결을 한다. 자연적 물질로서의 피 냄새는 생물학적 존재를 대변하지만 사회학적 의미로서의 피는

집단의 힘이나 권력적 페르소나를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sup>21)</sup> 과도하게 흘린 피는 집단의 권력이나 힘의 상실을 뜻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이다. 또한 후각적 감각은 시각적 감각에서처럼 죽은 생명만을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공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집단적으로 전염을 시킨다. 후각적 심리에서 건강하지 못한 냄새는 야콥슨 기관에 인지되는 순간 뇌에 저장되어 있는 좋지 않은 기억과 무의식을 자극하여 공포와 불안을 배가시킨다. 시각적 지각보다는 후각적 지각이 내면의 의식을 더 강도 깊게 전달하는 것이다. ‘피비린내’로 지각되는 공포와 불안이 민족 내에서 의사소통되면서 생존의 위기라는 집단의식으로 고착화되는 동시에 생물학적 존재의 위기의식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피비린내’를 매개체로 하는 시인들의 위기감 속에는 생명성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것은 ‘피 냄새’가 아니라 굳이 ‘피비린내’로 의식화한 것이다. 원래 비린내는 생명성을 표상하는 냄새이지만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생명적 존재성을 더 강하게 환기한다. 때문에 비린내는 생명이 태어나거나 생명이 부패되기 시작할 때 더 강한 냄새를 풍긴다. 비린내를 풍긴다는 것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죽은 생명과는 달리 소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의 ‘피비린내’는 민족적 존재의 건강한 생명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피비린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성 위기라는 코드로 정보화되어 있는 지각의 수단으로서 신체의 ‘사회적 의사 소통의 매체’이다. 당대 민족의 생존 상황을 신체의 후각적 감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6·25 전쟁 때 과도하게 흘린 피 냄새의 경험과 사회학적 의미가 결합되어 감각화된 50년대 사회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1) 필립 윌라이트, 김태옥 역, 『은유와 실제』, 문학과 지성사, 2000, 121-122쪽.

## 2. 생존본능의 추구와 배설물·흙 냄새

민족과 개인의 내상을 감지한 시인들의 위기의식은 강한 신체의 냄새로 존재성을 표시하거나 근원적인 생명성을 환기하는 냄새로 제 존재성을 드러낸다. 이런 후각적 의식은 시에서 ‘배설물’과 ‘흙 냄새’로 지각이 되는데,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냄새의 방출은 ‘나’와 ‘타자’의 존재와 영역을 구분하는 사회학적 행위의 경계표지(標識)로 작용한다. 같은 동족간의 정서적 동질감을 주는 배설물 냄새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위치나 계층, 그 영역의 권력 구조 등과 같은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최초의 배설 행위를 사회학의 근원이자 문명의 창시로도 보고 있다.<sup>22)</sup> 또한 어떤 ‘흙 냄새’의 체험적 기억을 떠올리는 생명력의 냄새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경험해온 환경적 요소로서의 흙은 우주적 질서에 의해 생명을 키워내는 터전이다. 생명에 대한 경험적 기억이 ‘흙 냄새’를 통해 환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김동명의 시는 50년대 서울의 현실을 “똥과 오줌과 가래침” 같은 배설물 냄새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사회적 존재성을 후각적 감각으로 의식화한 것이다.

쓰레기와 市長 閣下가/단판 시름 하는 거리//歸屬財産을 파먹고/구데기처럼 살이 찢 謀利꾼의 거리//어디 없이 널린 똥과 오줌과 가래침이  
실은/貪官汚吏 못지 않게 질색인 거리/소매치기 패도 제법/<뺨>을 자랑한다는 거리//거리도 곳잡/中間波 행세를 하는 거리//<감투>市長은  
여전히 흥성거리/거간군도 忠武路 金銀商 못지 않게 한 몫 본다는 거리  
//늪은이들이 하 망영을 부러/주춧돌이 다 흔들거린다는 거리

-김동명, <서울 素描> 부분 (『目擊者』, 1957)

산허리에 반사하는 일광/BAR의 연사./비둘기의 똥냄새 중동부전선./  
나는 유효거리권 내에 있다./나는 0157584다.

22) 라이얼 왓슨, 앞의 책, 72-73쪽.

-전봉건, <0157584> 부분 (『전봉건 시전집』, 2008 <『신천지』, 1954>)

김동명은 시에서 “똥과 오줌과 가래침” 등과 같은 신체에서 나온 배설물들을 50년대 민족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냄새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 이들 배설물은 우리 민족의 존재적 위치를 알려주는 후각적 알레고리이다. 그는 “똥과 오줌과 가래침”이 널려 있는 서울의 거리를 “貪官汚吏”에 비유하고 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탐욕적으로 발동되는 생존감각은 그만큼 당시의 삶과 현실이 생존을 보장하지 못할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존이 위협되는 현실, 즉 서울은 “市長 閣下”는 “쓰레기”와 “시름”을 하고 있으며, 서울의 거리는 “歸屬財産을 파먹고” 살이 찌는 “謀利꾼”들로 가득하며, 남의 것을 훔치는 “소매치기 패”의 “<뺨>”이 오히려 자량이 되는 공간이다. 50년대 서울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정신이나 고귀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나라의 “주춧돌이 다 흔들”릴 만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생존적 본능만이 통용되는 사회이다. 때문에 “똥과 오줌과 가래침” 같은 배설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행위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 존재성에 위기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사회적 실존성마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인 생명의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전봉건의 시 또한 생물학적 존재성의 위기 앞에서 강한 생존감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후각적 감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적 화자는 군번이 “0157584”인 군인으로 총알을 맞으면 죽는 “유효거리권 내”에 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전쟁터를 “비둘기의 똥냄새”로 지각하고 있다. 전쟁터를 동물의 배설물 냄새로 지각하는 것은 그곳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은 배제된 동물적 감각만이 필요로 하는 생존현상이라는 것을 의식화한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의 존재적 위치가 생물학적인 존재성조차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암

시한 것이다.

전쟁이라는 비생명적 현실 앞에서 본능적으로 발동되는 생명적 감각은 배설물로도 나타나지만 경험적 기억을 통해서 근원적인 생명성을 환기하는 ‘흙 냄새’의 의식화를 통해서도 표출된다.

여기 피비린 玉樓를 헐고/따사한 햇살에 익어가는/草家三間을 나는  
짓자//없는 것 두고는 모두다 있는 곳에/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  
을 치나//虛空에 박힌 화살을 뽑아/한자루 호미를 베투어 보자/풍기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면/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조지훈, <흙을 만지며> 부분 (『역사 앞에서』, 1950)

같은 祖國의 山河/네 고장의 흙냄새가 바로 이러하리라. //아 이는 원수이거나 한 핏줄 겨레가 아니거나 다만 그대로/살아 있는 人間의 尊嚴한 愛情

-조지훈, <여기 傀儡軍戰士가 쓰러져 있다> 부분 (『역사 앞에서』, 1950)

<흙을 만지며>에서 “흙 냄새”는 “피비린 玉樓”, 즉 처참한 민족 현실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후각적 차원에서 ‘냄새’의 촉발로 어떤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마들렌 효과’<sup>23)</sup>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냄새가 무의식이나 내면적 욕구 등과 같은 원초적 욕구를 일깨워 환기시키는 것을 말한다.<sup>24)</sup> 시에서 또한 “흙 냄새”는 생태적 질서가 가진 생명적 에너지를 떠올리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흙 냄새의 이미지는 오랜 환경적 경험을 통해서 인류에게 내재되어 있는 흙에 대한 기억들, 우주의 생명을 키우는 대지, 유기체의 모태라는 경험적 기억을 환기한다. 이런 근원성의 환기는 심리학적 실재성은 없지만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존재론적 의미는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성을 우주적

23) 라이얼, 왓슨, 앞의 책, 240쪽.

24) 다이낸 에커먼,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관』, 작가정신, 2004, 65쪽 참조.

일원으로서의 존재성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다. 이는 역사성을 가진 인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우주적 질서가 가진 순환적 생명성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주적 질서가 가진 순환성에 의해서 다시 생명성을 회복할 거라는 믿음을 감각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현실을 종합적인 사고력을 통해 판단하는 시각적 감각이 사회적인 실존성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후각적 감각은 과거 지향적인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생물학적인 존재론을 지향한다. 때문에 여기서 생물학적 존재론의 지향은 우주적 존재로서의 뿌리의식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뿌리의식의 환기는 <여기 傀儡軍戰士가 쓰러져 있다>라는 시에서도 나타나 있다. 우주적 존재로 태어난 한 개체라도 무리를 이루면 같은 집단이 된다. 이 집단의 성향, 즉 우리 민족의 성향을 조지훈은 같은 환경에 태어난 생물학적 존재성의 특징이라 보고 있다. 그것을 환기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흙 냄새”이다. 비록 지금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가 싸우고 있지만 국군에게나 인민군에게나 “祖國의 山河”는 같은 “고장의 흙냄새”를 환기시키는 민족 고유성의 냄새이다. 남·북한의 민족에게 같은 고향세계를 환기시키는 “흙냄새”는 민족에게 정신적 지표가 되는 신화인 동시에 민족 간에 공유한 경험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이다. 결국 두 시에서 조지훈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생명성의 환기는 생물학적인 존재성을 통해 민족적 존재성을 회복하려는 본능적 욕구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는 6·25 전쟁과 당대 사회현실을 반영한 후각적 감각을 통해 민족을 보존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전자적인 요소의 신체의 냄새로 본능적 생존감각을 표출하거나 냄새로 체험한 기억을 환기하는 양상으로 의식화되어 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회귀하여, 생물학적 존재성의 탐색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후각이 뇌의 원초적인 부위와 상호소통을

하는 감수성과 무의식에 더 근접에 있는 감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점이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려는 시각적 지각과는 다른 면모이다. 또한 후각적 감각이 보여주는 사회적 존재성의 거부와 퇴행 현상은 당시 인간으로서의 실존성과 민족적 실존성의 질이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년대 민족의 상황이 생물학적 세대성을 염려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Ⅲ. 변질된 정신 가치의 비판과 문명 냄새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실존적 불안과 서구문명에 대한 냄새는 개인과 민족의 사회적 실존성과 문화주체성에 대한 시인들의 정신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0년대는 파시즘적 문화와 무분별하게 유입된 미국문화로 인해서 민족문화는 좌절을 겪었고,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야기된 문화적 통제와 혼란은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를 정립하는 데에 방해를 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시인들은 감각적으로 인간다운 실존성과 문화적 주체성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후각적 감각의 정신지향성은 감각의 의식화 과정에서 가장 승화된 사회화의 의식인데, 주로 인간의 사고나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역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런 후각적 의식들이 감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감각화의 과정은 패턴으로 굳어지고, 이런 패턴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는 후각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후각적 이데올로기나 상징 속에는 생물학적 존재가 체험한 감각화의 과정과 세대를 거치면서 전승된 유전적 사고나 원형 뿐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사상으로 자리 잡은 집단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이미 이데올로기화되거나 상징화된 후각적 의미라 하더라도 그 의

미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역사성 속에서 형성된 신체와 정신의 상호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신체의 현상학에서 문화를 생물·사회학적 존재성의 결합물로 보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순수현상학자인 에드문트 후설에 의하면 모든 자연은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화는 자연적인 능력으로 대변되는 생물학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sup>25)</sup> 때문에 문화적 의미에는 인간의 신체성이 가진 본능과 세대성(Generativität: 탄생과 죽음)이나 습성<sup>26)</sup> 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는 문화로서 정신화된 주위세계의 총체적 경험인 것이다.<sup>27)</sup>

이런 후각적 기능들은 50년대 시에서 실존적 불안을 치유하고 사회 현실을 정화하려는 냄새와 문화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냄새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 1. 실존적 불안 치유와 담배 연기

현실불안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존재성을 회복하려는 후각적 감각의 정신지향성은 현실을 정화하여 내면을 치유하려는 냄새로 나타난다. 이런 냄새들은 후각적 의례의 양상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담배 연기’이다. 후각적 차원의 이런 의례들은 그것이 실재든 심리적이든 간에 현실 불안과 존재성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질병에 대한 치유(향기 요법, Aromatherapy)는 실제 냄새의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 내면을 치유하려는 의례적 상징 행위이다.<sup>28)</sup> 희망과 공포, 즉 초월적인 힘에 기대려는 인간의 목시적인

25) 에드문트 후설,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1, 한길사, 2009, 44-45쪽 참조.

26) 박인철, 「상호문화성과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103집, 한국현상학회, 2010, 44-45쪽, 400쪽.

27) 박인철, 「현상학과 문화」,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101집, 한국현상학회, 2009, 11, 38쪽.

28) 송인갑, 『냄새』, 청어와 뽕뽕, 2000, 169쪽 참조.

욕망과 사회적 신체적 한계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해소해 보려는 심리<sup>29)</sup>의 상징이다.

이런 후각적 의례는 50년대 시에서 당대 사회의 실존적 불안과 허무를 훈증 기능으로 해소하려고 하거나 혹은 순수한 후각적 유토피아의 추구로 세계를 회복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훈증(熏蒸, fumigation)의 기능을 통해서 묵시록적인 현실을 정화하려는 김규동과 박인환의 시를 보자.

江에는/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다//소리 없는/사람들의 理  
念과 歷史를 低流에 지니고/엷은 남빛의 파라솔에 싸인/여름을 스쳐/江  
은 老鍊한 軍隊의 進駐처럼/서둘러지도 않고/그러나 게을리지도 않게  
가고 있다//마음의 空白에/담배 연기를 흘리며 砂場에 누우면/肉體에  
밀려드는 그리운 노래가 있고,

-김규동, <2號의 詩-江의 抽象> 부분 (『나비와 廣場』, 1953)

군인이 피워 물던/물뿌리와 같은 연기의 印象과/위기에 가득찬 세계  
의 邊境/이 回想의 긴 溪谷 속에서도/列을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서럽고 또한 幻想에 속은/어리석은 영원한 殉教者/우리들.

- 박인환, <回想의 긴 溪谷> 부분 (『박인환선시집』, 1955)

김규동과 박인환의 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훈증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 어떤 냄새로 무엇인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훈증은 악령처럼 존재의 침입을 막는 의례에 사용될 뿐 아니라 사회 질서나 우주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통제하는 의례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때의 냄새는 물리적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의 치유기능을 갖는데,<sup>30)</sup> 그 영향력은 연기의 냄새가 가지는 공간 확장과 수직 상승의 속성을 통

29) 콘스탄스 클라센, 「향기를 따라서-중세에서 현대까지」,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86쪽 참조.

30) 콘스탄스, 클라센·데이비드 하위즈·앤소니 시노트, 앞의 책, 167쪽.

해서 확산된다.<sup>31)</sup> 시에서 담배 연기는 시각적 대상이 아닌 코로 흡인되는 대상으로써의 냄새 지각이며 그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냄새 즉,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현실을 정화하려는 의식이다. “담배 연기를 홀리”는 행위는 “마음의 空白”을 치유하는 것, 즉 현실불안에서 오는 실존적인 허무를 치유하려는 공간 확장 개념의 후각적 의례라고 볼 수 있다. 냄새가 상처 받은 사람들의 후각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방식이다.

김규동의 시에서 ‘담배 연기를 홀리는’ 행위는 목시록적인 현실에서 오는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운 노래”로 비유되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안한 실존성이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살고 있는 터전 곳곳을 통해 끊임없이 환기되고, “理念과 歷史를” 정신적 트라우마로 “低流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성일 것이다. 감각적 차원에서 이것은 본능적 냄새 지각으로 인한 의식화 작용이 아니라 이미 시각적으로 감각화된 불안을 그동안 사회에서 통용되는 후각적 의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현실을 이성적 사회가 만든 장치로 해결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의례화된 신념에 더 기대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실존성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년대 사회는 냉전체제가 낳은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편향 그리고 문화적 검열과 통제를 하는 지배체제로 인해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한 시대였다. 시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부정으로 관념적 세계에 기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거나 외부세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실존주의에 주목했다.<sup>32)</sup> 이것 또한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인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다.

어쨌든 시인들이 현실을 직관이나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회적

31) 라이얼 왓슨, 앞의 책, 198쪽.

32) 한수영, 「식민지, 전쟁 그리고 혁명의 도상에 선 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민족문학사강좌』, 창비, 2009, 291-300쪽 참조.

실존성이 갖는 힘을 믿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 박인환의 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박인환 또한 ‘담배 연기’를 심리적 안정기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있어서는 추상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박인환은 당대의 사회를 “위기에 가득찬 세계”로 보고 있으며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뉘를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殉敎者”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군인이 피워 물던” 담배를 “물뿌리와 같은 연기”로 의식화한다. 그런데 박인환은 혼증의 기능에 “물뿌리”를 접목하고 있는데, 이는 물이 가진 재생성을 혼증 기능에 더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치유 기능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의 말처럼 인간의 존재가 흐르는 물의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질료라 본 것이다.<sup>33)</sup> 때문에 여기서는 혼증 기능이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실존성을 추구하는 현실탈피의 욕망도 작동하게 하고 있다. 사회를 정화하려는 박인환의 혼증 기능이 김규동보다는 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능동적인 태도는 더 강한 현실 부정을 의미한다.

냄새가 갖는 혼증 기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실존성을 획득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는 장만영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한다. 우리가 살던 그 마을에 어느덧 꽃은 피었을가. 羊치는 머슴과 그의 아내처럼 그 때 우리는 아무 슬픔도 모르고 살던 것을. 우리가 사랑은 하고, 그랬길래 우리에게 괴롭던 마을... 記憶은 한줄 연기처럼 슬픔으로 피어..... 피어 오르는 슬픔 속에 마을 風景이 괴이려니 떨린다. 아아 맑은 하늘, 푸른 하늘, 따뜻한 하늘에 구름은 바람에 쫓기어 돌아 다니고, 보리 중달새 우짖고, 어딜 가나 꽃향기 풀향기 습막히게 풍기는 곳. 그곳을 이제 우리 찾아 가리라.

-장만영, <抒情歌> 부분 (『밤의抒情』, 1956)

33)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물과 꿈』, 문예출판사, 2004, 18쪽.

장만영이 훈증 기능을 통해 욕망하는 것은 후각적 유토피아이다. 여기서 훈증 기능은 사람에게 낙관적인 사고를 증대 시켜 내면의 트라우마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어 놓는다. 코로 지각되는 냄새를 통해 심리적 건강성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회적 실존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후각적 유토피아로 구체화된다. 새로운 사회적 실존성은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장만영은 그 세계를 타락한 현실과 정신에 대한 대응체로서 문화화 되지 않은 세계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원환상(Urphantasi<sup>34</sup>)’의 세계로 보여준다. 시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던 마을” 즉, “어딜 가나 꽃향기 풀향기 숨막히게 풍기는” 장소로 생동적인 향기로 가득 찬 후각적 유토피아가 새로운 사회적 실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향기의 지향성은 사회·제도의 계급적 차원에서나 정신적 차원에서 그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족의 사회적 지위와 실존성을 높이려는 후각적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에텐동산과 같은 낙원 원형인 이런 ‘원환상’을 현실 회복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장만영이 그만큼 현재의 실존성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의 훈증 기능은 단순히 실존적 불안을 치유하고자 하는 심리기제만이 아니라 당대의 실존적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감각적 표출이라 할 수 있다.

## 2. 문화적 존재의 비판적 성찰과 서구 냄새

당대 문화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후각적 감각의 정신 지향성은 이(異) 민족의 냄새로 나타난다. 이런 냄새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표출되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냄새와 변별되는 ‘서구 냄새’이다. 오랜 시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의 고유성을 대변하는 냄새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동질감으로 통용되

34)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프로이트, 라캉에서의 욕망과 환상론』, 현대문학, 2005, 188-243쪽 참조.

어 그들 간에 긴밀한 연대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민족적 주체성과 동일시된다. 때문에 타 민족 간의 지위가 대립적 위치에 놓이게 될수록 상대 민족의 냄새를 혼합하는 것을 금기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강해진다. 서로의 존재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후각적 대립은 식습관, 위생, 향료, 일상생활, 환경 등의 냄새로 이데올로기화되어 표출된다.

이런 후각 이데올로기는 시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변질시키는 냄새로 의미화되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음식문화로 표상되는 ‘서구 냄새’와 ‘음식 냄새’이다. 전봉건과 조향은 해방 이후 무분별하게 수용된 서구의 물질문명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얼룩진 시트의 냄새가 풍기는 능선/나는 콧등을 눈으로 문질러대고  
 싶다/대공포식 위에서 여태 곤한 계집의 눈초리와도 같이 맴도는 정찰  
 기./나는 문득 소리지른 토일렛 페이퍼를 생각한다./구겨진 토일렛 페이  
 퍼 같은 얼굴에서 구겨진 토일렛 페이퍼 같은 얼굴로 옮겨가는 위생병/  
 장충이 거꾸로 꽃힌 800야드에 얼룩진 찢겨진 흩어진 슈미즈 모양으로  
 얼어붙은 강./나는 오줌이 마렵다

-전봉건, <0157584> 부분 (『전봉건 시전집』, 2008 <『신천지』,  
 1954>)

불현듯이 SARA의 몸냄새가 나를 덮치면서/SARA의 젖무덤을 내손  
 가락이 환각한다./무수한 SARA가 내 앞을 행진한다/방글거린다 흘쩍거  
 린다 성을 낸다 깔깔깔 웃어댄다./나는 도무지 박수하지 않는다.

-조향, <SARA DE ESPERA> 부분 (『조향전집 1』, 1994  
 <『문학세계』, 1952>)

전봉건은 물질의 이질적인 냄새를 통해 문화적 주체성을 지각한다. 미  
 군정 수립 이후 미국문화는 유입은 상호소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정과 미군병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무분

별하게 수용된 서구의 물질화 현상을 우리나라의 “능선”에서 풍기는 “시트의 냄새”로 의식화한다. 시트는 서구의 물건인 침대를 아래위로 덧씌우는 흰 천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민족문화를 혼란에 빠트리는 서구문화의 표상이다.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은 그 민족의 정서와 정체성 등의 특징을 부여한다.<sup>35)</sup> 오랜 세월의 전승되어 오면서 민족적 존재와 정신의 ‘공통의 핵’으로 표상되는 민족만의 경험적 기억은 사회 전반에 내재해 영향을 끼친다.<sup>36)</sup> 때문에 민족적 공간에서 풍기는 서구의 냄새는 단순한 이 민족의 냄새가 아니라 혼합이 되지 말아야 할 사회적 금기로서의 지각이다. 때문에 서구의 냄새로 지각되는 민족적 공간은 이미 민족적 주체성과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봉건은 민족적 냄새의 변질을 민족정신의 변질로 보고 있다. 한국전쟁이 동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점령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것을 후각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는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우리 민족을 희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대표공식”은 “정찰기”를 가진 미국이다.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장총”에 의해 민족의 공간은 “얼룩진 찢어진 흩어진 슈미즈 모양”이 되어간다.

이러한 문화주체성 잠식에 대한 강한 거부 의식이 “오줌이 마렵다”는 후각적 감각의 발동이다. 앞 장에서 말했지만 배설물 표지의 본능은 타자에 대한 경계 의식이자 나의 영역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심리적 정치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민족과의 대립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후각적 심

35)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8쪽-30쪽 참조.

36) 후설은 한 민족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화세계를 정신을 형성하는 ‘공통의 핵’으로 본다. 이를 토대로 현상학자인 메를로 폰티나 현상학적 사회학자 알프레드 슈츠 그리고 베르그손 등은 민족신화를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도덕체계를 형성하는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해석의 토대로 삼는다.

김광기, 「알프레드 슈츠와 ‘자연적 태도」,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5집, 한국현상학회, 2005, 64-69쪽 참조.

리인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문화라는 것이 정신적 향유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존재성과 사회학적 존재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체화(體化) 되는지를 후각적 감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서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조향의 시에서도 나타난다. 조향은 이미 혼종화되어 버린 문화주체성을 후각적 감각으로 보여준다. 조향은 “SARA”라는 서구의 상징적 이름을 통해 문화적 존재성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의식화한다. 시에서 서구적 존재성으로 상징화된 “SARA”의 “몸 냄새”는 아주 유혹적인 주체로 형상화된다. “SARA”의 냄새가 “나를 덮치면” “SARA의 젖무덤을” “내 손가락이 환각한다”. 이것은 서구적인 실존성이 당대 개인에게 얼마나 매혹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시에서 “SARA의 젖무덤”은 서구 문화의 쾌락을 제공해 주는 여성적 몸과 모태의 젖줄이라는 이중의 함의를 갖고 있다. 서구의 물질문명은 그것이 어떠한 측면이든 민족적 존재성을 위협하는 대상인 것이다. 때문에 시에 나오는 “무수한 SARA”는 서구의 문화와 물질문명에 의해 민족의 고유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무수한 SARA”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 조향의 의식은 이런 문화적 주체성에 대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존재성에 대한 시인들의 비판적 성찰은 음식문화에 내재된 민족적 가치를 의식화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찢든찢든하다/진한 丙出血·‘커피’냄새/밤이 몽게몽게 내 입/에서  
기어나온다/나의 餘白이 까아망게/沈沒해 간다//이기가 번성하는 계절/늘  
地帶에는 송장/들의 녹녹한 향기

-조향, <絶色 椅子가 앉아 있는 ‘베란다’> 부분 (『조향전집 1』,  
1994 <『자유문학』, 1957>)

骸骨이 分泌하는 칼피스의 내음./미끈거리는 하늘에 피어오르는/저

煙氣들은/땅뒤에서 산다는 못 짐생들의/憂鬱한 百日咳 기침이 아닌가.

-김상화, <自殺日記> 부분 (『計算器가 놓여있는診察臺』, 1952)

후각적 차원에서 음식 냄새에는 집단의 가치체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sup>37)</sup> 조향은 서구의 기호 식품인 “커피 냄새”를 서구 민족의 정신적 가치체계로 보고 있다. 서구의 음식 문화가 우리의 음식 문화로 파괴하고 나아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본다. “커피 냄새”가 “진한 內出血”과 동질한 의미<sup>38)</sup>로 읽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통 음식의 미각을 잃고 서구 미각에 길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선택이라는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맛으로 길들여진 감각적 경험과 관습은 일상적인 문화로 고착되면서 집단의 정신까지 서구적으로 바꾼다. 미각의 변질은 문화적 존재성의 변질이자 정신의 변질인 것이다.<sup>39)</sup> 현상학자의 말대로 인간의 신체는 과거로부터 이미 결정된 문화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신체에는 세대를 거치면서 전승되어온 문화와 영혼이 감각화된 실체이다. 따라서 신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음식 문화 속에는 그 종족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한 內出血”을 촉발하는 ‘커피 냄새’는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파괴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문화주체성의 파괴가 민족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끼가 번성하는 계절”이나 “늪地帶에는 송장”, “들의 늑늑한 향연” 같은 말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김상화 시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감각화된다. 김상화는 그것을 “칼피스의 내음”으로 의식화하는데, 칼피스는 우유를 가열하여 살균시킨 뒤, 이것을 냉각하고 발효한 뒤 당액(糖液)과 칼슘을 넣어 만

37) 콘스탄스 클라센·데이비드 하워즈·앤소니 시노트, 「냄새의 세계」, 앞의 책, 148쪽.

38) 내출혈과 커피 냄새 사이에는 가운데 점이 있어 동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문법 기호에서 가운데 점은 두 대상이 동등하거나 병렬,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39) 알베르트 수스만, 앞의 책, 132쪽, 151쪽 참조.

든 음료수인데, 일본의 한 회사가 만든 음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시에서 전통 음료가 아닌 외래의 음료는 “骸骨이 分泌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를 보듯 김상화 또한 타 문화가 우리 민족의 존재성과 정신적 가치를 변질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곧 타 민족에 대한 뉘새를 배척함으로써 내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는 민족의 실존적 상태와 문화적 혼란을 반영한 후각적 감각을 통해 당대 사회와 서구 문명을 비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의 문제를 초월적인 힘에 의하고자 하는 후각적 의례나 문명의 뉘새를 비판하는 양상으로 의식화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를 후각적 의례와 같은 관념적 세계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명의 뉘새를 배척하는 것은 이성적 사회에 대한 강한 부정의식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민족이 만든 사회적 실존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상황이 만든 문화주체성이 더욱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후각적 지각은 생물학적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심리이다. 사회적 실존성은 최하위이며, 서구 문화가 민족 문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때문에 문명적 후각 이미지는 당대의 실존적 상황과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뉘새의 정신지향성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이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에선 당대 사회와 문화적 현상을 후각적 감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존재성과 사회학적 존재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체화(體化) 되는지를 후각적 감각으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후각적 감각은 생물학적 존재의 지각에서부

터 사회학적 존재의 지각까지 인간의식의 넓은 영역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나 실존, 역사,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폭넓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에 나타나는 후각적 감각의 의식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년대 시에서 후각 이미지는 민족의 생존 위기를 지각하는 ‘피비린내’와 생존본능을 추구하는 ‘배설물 냄새’ 그리고 근원적인 생명성을 갈망하는 ‘흙 냄새’와 같은 자기보존 욕구의 냄새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장 본능적인 사회화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후각적 의식인데, 민족의 존재성 위기나 생명성 갈망의 의식이 과거지향성이나 경험적 기억을 환기하는 후각적 감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 판단에 있어서 후각적 감각이 뇌의 원초적인 부위와 상호소통을 하여서 감수성과 무의식의 영역을 더 많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른 감각과는 달리 후각적 감각은 생물학적 존재성의 영역을 더 잘 표출한다. 이것은 후각적 감각이 호흡기관으로, 생명과 직결된 본능감각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런 후각적 의식은 본능적 후각 감각으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민족 내에서 소통되던 공통감각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 민족의 존재성이 생물학적 세대성을 염려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각화한 것이다.

둘째, 50년대 시에서 후각 이미지는 당대 현실로 인한 실존적 불안이나 문화주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배 연기’나 ‘서구 냄새’와 같은 문명적 냄새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장 승화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후각적 의식인데, 현실의 문제를 관념적 세계에 기대어 해결하러 하거나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양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성적 사회의 불신으로 인한 실존적 불안 때문이며, 서구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즉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인들의 도덕성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후각적 의식은 민족의 실존적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문화가 주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다. 이것은 한 민족이 가진 후각적 이데올로기나

상징이 문화화된 정신의 집합체이며, 후각의 정신적 가치가 현실을 토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현실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이런 후각적 의식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시각적 감각에서 보자면 민족적 힘의 상실이자 냉엄한 문화적 현실의 패배라 단언하겠지만 후각적 감각에서는 그것을 생애적인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존재성과 사회적인 실존성을 폭넓게 아우르는 신체적, 정신적, 역사적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50년대 시인들은 이것을 의식했던 안했던 간에 후각적 감각 속에는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자기보존 욕구와 문화적 주체성의 혼란과 같은 후각적 특징들은 30년대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이것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역사적 주체로 서지 못한 민족의 현실이 감각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는 후각적 특징에서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주체로 서기 위한 우리 민족의 태도가 30년대에는 저항적 의지로 나타난 반면 50년대는 허무와 실존의 불안 양상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주체로서의 민족적 현실이 30년대보다 50년대에 더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50년대 시의 후각 이미지들은 전후 현실을 사는 민족의 존재론적 문제와 실존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현상을 감각적으로 내재화했다는 점과 그동안 본능적 감각이라 경원시했던 후각적 감각 속에도 현실 대응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한국시사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후각적 관점 연구를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편자, 『한국현대시사자료대계』9-26, 동서문  
화원, 1987.
- 구상, 『초토의 시』, 레포트샵, 2004.
- 김규동, 『나비와 광장』, 위성문화사, 1953.
- 김동명, 『목격자』, 인간사, 1957.
- 김상화, 『계산기가 놓여 있는 진찰대』, 국제신문사출판국, 1952.
- 남진우 엮음, 『전봉건 시전집』, 문학동네, 2008.
- 노천명, 『별을 쳐다 보며』, 희망, 1953.
- 이철주, 『수난의 장』, 문성당, 1950.
- 임동화 엮음, 『박봉우 시전집』, 현대문학, 2009.
- 박인환, 『박인환선시집』, 산호장, 1955.
- 박인환 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 장만영, 『밤의 서정』, 정양사, 1956.
- 조지훈,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0.
- 조향, 『조향전집 1』, 열음사, 1994.

### 2. 국내외 저서 및 논문

- 강내희,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문학과과학사, 2003.
- 김광기, 「알프레드 슈츠와 ‘자연적 태도’」,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25집,  
한국현상학회, 2005, 47-70쪽.
- 김기택, 「한국 현대시의 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성규,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부정정신」,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 김성태, 「최승호 시 연구 : 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4.
- 김학동,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1-5, 예림기획, 2005.
- 김행숙, 「최승호 시의 생태학」, 『우리어문연구』 제25권, 우리어문학회, 2005, 119-147쪽.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9.
-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민족문학사 강좌』, 창작과비평, 2009.
- 박인철, 「상호문화성과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103집, 한국현상학회, 2010, 129-157쪽.
- 박인철, 「현상학과 문화」,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101집, 한국현상학회, 2009, 29-56쪽.
- 백소연, 「최승호 시 연구 : 생태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우찬제, 「후각 환각, 그 감각의 탈주」, 『문화와사회』 제21권, 2008, 249-251쪽.
- 이남인, 「본능적 지향성과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성」, 『현상학과 실천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3, 38-63쪽.
- 이봉범, 「1950년대 문화검열과 매체 그리고 문학」, 『한국문학연구』34, 한국문학연구소, 2008, 54-76쪽.
- 이승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5.
- 이희승 감수,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1974.
- 임지연, 「1950-60년대 현대시의 신체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프로이트, 라캉에서의 욕망과 환상론』, 현대문학, 2005.
- 소래섭, 「1920-30년대 문학에 나타난 후각의 의미」, 『사회와 역사』제81

- 집, 한국사회사학회, 2009, 69-93쪽.
- 송영상,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죽음의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송인갑, 『냄새』, 청어와 뼈뼈, 2000.
- \_\_\_\_\_, 『향수, 영혼의 예술』, 디자인하우스, 1999.
- 전미정, 「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서정주, 오장환, 송옥, 전봉건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진경, 「1930년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황수영, 『베르그손-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이룸, 1997.
- \_\_\_\_\_,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7.
- 가스통 바슐라르, 김병욱 옮김, 『불의 정신 분석』, 신화 종교 상징 총서, 2007.
- \_\_\_\_\_, 이가림 옮김, 『물과 꿈』, 문예출판사, 2004.
- \_\_\_\_\_, 정영란 옮김, 『공기와 꿈』, 이학사, 2008.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 골드 스테인, 김정오 외 엮음, 『감각과 지각』, (주)시그마프레스, 2008.
- 나카무라 유지로, 고동호 역,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 다이낸 애커먼,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관』, 작가정신, 2004.
- 라이얼 왓슨, 이한기 역, 『코』, 정신세계사, 2002.
- 루돌프 슈타이너, 양역관·다카하시 이와오 옮김, 『초감각적 세계 인식』, 물병자리, 2006.
- 루카 튜린, 장재만·유영상·임순성 역, 『향의 비밀』, 쉐텍(주), 2010.
-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 궁리출판, 2010.

- 알베르트 수스만, 서영숙 역,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 2007.
-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일본취기대책연구협회 편저, 양성봉 외 옮김, 『후각과 냄새물질』, (주)수도PEC출판부, 2004.
- 에드문트 후설,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1-3, 한길사, 2009.
- 피트 브론·안톤 반아메롱겐·한스 데 브리스, 이인철 옮김, 『냄새 : 그 은밀한 유혹』, 까치, 2000.
- 필립 윌라이트, 김태욱 역, 『은유와 실재』, 문학과 지성사, 2000.
- 피에르 라즐로, 김성희 옮김, 『냄새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6.
- 콘스탄스 클라센, 「고대의 향기들」, 콘스탄스 클라센 외, 김진옥 옮김,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 토도로프, 이기우 옮김, 『덧없는 행복-루소론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2005.

KYOBO  
교보문고

<Abstract>

## Study of Olfactory image shown on Poetry in 1930s

Jeong, Jin-Gyung

It had been such insecure times for politics, culture and the national existence itself due to the Korean War in the 1950s. The government had inspected or controlled culture and all sorts of systems in order to strengthen the anti-communist ideology thus the voices of poets had been suppressed. In these days people are supposed to observe the olfactory sense becoming conscious based upon the susceptibility of real world. The olfactory images in poems of the 1950s have the following features reviewed by applying the body perception theory and social & cultural olfaction theory.

First, the 50's, when the nation's image in the sense of smell to perceive the crisis 'survival and survival instinct to seek bloody' fecal odor and craving sex life 'underlying soil' smell the smell of the desire for self-preservation as shown. Second, during the 1950s in the olfactory image of contemporary reality, due to the existential anxiety and a critical reflection on cultural identity 'smoke or odor' 'Western civilizational smell like' appear.

These features showed that the olfactory images of poems had widely responded the reality of a nation living after war, society and culture. Further, the society and culture are reflected even in the middle of instinctive sense as biological existence.

Key Words : the 1950s, olfactory image, research on poems of sense,  
smell, olfactory sense

■ 논문접수 : 2013년 10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